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참고자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2년 4월 15일(금) 19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2. 4. 15.(금)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담당과장	조수정 과장(044-203-5740)	담 당 자	박수정 서기관(044-203-5741)

정부, CPTPP 가입 추진계획 의결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서면 개최 -

□ 정부는 **4.15(금)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서면 의결**하였음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 제6조에 따라,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 수립 필요

○ 정부는 그간 **공청회(3.25) 등 사회적 논의 결과를 토대**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마련**하였고, **4.11~15일 이를 서면결의**하였음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CPTPP 가입은 **TPP 시절부터 8년 이상 검토**해온 과제로, 정부는 **그간의 준비를 바탕**으로 **금번 대경장 의결을 통해 가입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힘

○ 또한, "이는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대응**하고 **아태지역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한 걸음 나아간 데 의미가 있으며,

○ 앞으로도 **농수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면서 가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

□ 정부는 향후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 추진계획」 국회 보고** 등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한 후,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임

【붙 임】 CPTPP 관련 주요 질의답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박수정 서기관(☎044-203-5741) 또는 이연 사무관(☎044-203-574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CPTPP 관련 주요 질의답변

❶ CPTPP에 왜 가입해야 하나요?

A. CPTPP는 **아태지역 주요 메가 FTA**로서, 우리의 CPTPP 가입은 첫째,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둘째, **역내 공급망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셋째, **아태 통상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❷ 꼭 지금 신청해야 하나요?

A. 정부는 **TPP부터 8년 이상 가입을 검토**해왔고, CPTPP의 **경제적·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가입을 본격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21.2), 중국(9월), 대만(9월), 에콰도르(12월)가 가입을 신청**하였고, CPTPP를 둘러싼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대응**하여 **실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가입신청에 대한 **대내외 여건이 마련된 시기를 잘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❸ CPTPP 가입은 언제쯤 완료되나요?

A. 지금 가입신청을 한다고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가입신청 이후에도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식적으로 가입신청을 하면 가입협상 개시 여부를 회원국들이 결정해야 할 것이고, 협상이 개시된다고 하면 본격 협상하는데 또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절차와 과정을 거쳐 협상이 타결되면 또 국내 국회 비준 동의 과정을 거쳐야 발효가 됩니다.
다만, **가입신청마저 하지 않는다면,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❹ 미국은 CPTPP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왜 CPTPP 가입을 추진하나요?

A. 정부는 **급변하는 아태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내 통상질서에 참여**하기 위해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PTPP **신규 가입신청국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의 대응방안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❺ CPTPP에 가입하면 농수산업계 피해가 크지 않나요?

A. 아직 협상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CPTPP 회원국들의 자유화 수준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 가입시에도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 대해서는 **기존의 양자 FTA를 통해 약 85% 수준의 품목을 이미 개방**한 상황이고, 과거 미국, EU와의 FTA에서 96%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으로 농산물을 개방한 경험**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후 가입신청을 하고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정부는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지원하고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까지 고려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원칙하에 선제적으로 **보완대책 기본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협상이 완료되면 협상 결과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직접피해지원제도 개선,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투입 확대, 국산 농·수산물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 농·어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농·수산업 구조전환 지원 등

❻ 중국 가입을 고려하면 농수산업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영향평가에 이에 대한 고려는 왜 없나요?

A. 중국의 CPTPP 가입 관련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이에 양국간 시장개방 수준도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힘든 만큼 **정량적 분석 수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 우리가 CPTPP 가입신청을 하더라도 **협상개시에서 완료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영국, 중국 등 가입신청 국가들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의 가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는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대응방안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❼ CPTPP에 가입하면 SPS 규범이 강화되어 수입 농축산물 위생검역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지 않나요?

A. CPTPP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위생검역 규정이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CPTPP 규범은 우리의 기체결 FTA보다 농축산물 수입 허용과 관련된 수입국의 절차적 의무와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나, 이것은 회원국 간 투명하고 합리적인 위생검역 제도 운용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관련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위생검역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CPTPP 가입으로 수입국의 의무 강화가 검역의 실체적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위생검역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❽ CPTPP에 가입하면 수산보조금이 없어지나요?

A. CPTPP 수산보조금 규범은 **과잉어획과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수산보조금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규범은 아닙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조화**를 이루며 수산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CPTPP 가입이 **면세유 등 현행 수산보조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❾ CPTPP에 가입하려면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해야 하나요?

A. 후쿠시마産 수산물의 수입을 허용하는 문제는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문제로서, CPTPP 가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CPTPP 가입의 전제조건도 아닙니다.**

○ 수산물의 수입금지에 대해서는 검역 관련 국제규범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에 놓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❿ 농수산업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었고 구체적인 보완대책도 없지 않나요?

A. 정부는 그간 **지역 간담회, 업종별 협의회, 공청회** 등 **여러 차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의견수렴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또한,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피해보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수립**했습니다.

○ 또한, 가입신청 후에도 실제 협상개시, 타결, 발효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수산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향후 협상이 완료되면 협상 결과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